복식문화연구
제9권 제4호 639~650(2001)

여성 의복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 지각자 특성을 중심으로 -

류 숙 희 · 류 지 은
계명대학교 의류학과

The Effects of Women's Clothing Styles on the Impression Formation
-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ceiver -

Sook-Hee Ryoo and Ji-Eun Ryu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eimyu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characteristics of the perceiver make differences in impressions of clothing types in the situation of first impression formation. Questionnaire was used as major method of gathering data. A poll of 650 men & women between the ages of 20~39 living in Daegu was taken by the author for this study.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frequency, ANOVA-test and t-test were implemented with the SPSS-package.

The characteristics of clothing types used in our experiments include: sexy, masculine, feminine, dramatic, elegant-classic and casual.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Men favored sexy clothes more than women, whereas women tended to like masculine clothes more than men.
2. Positive, open-minded men were accepting of masculine, feminine, dramatic and elegant-classic clothes, but gave unfavorable responses toward casual clothes. In contrast, positive open-minded women continued to show unfavorable impressions of sexy clothes. Attitude towards clothing affected the outlook towards clothing by the perceiver.
3. Clothing-dependent/vain men favored sexy, dramatic and elegant-classic clothes, while clothing-indifferent men tended toward casual clothes. Furthermore, clothing-dependent/vain women were interested in the feminine style, but women in general continued to show negative responses toward sexy and dramatic clothes.

Key words: impression formation(인상형성), clothing-dependent(의복의존형), vain(자기과시형), clothing-indifferent(의복무관심형), perceiver(지각자).

I. 서 론

우리가 착용하는 의복은 기능적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이나 정서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형성에 사용되는 단서들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의복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인상형성에 있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는데, 그 다양성에 따라 형성되는 인상도 달라진다.

의복은 착용된 사회적 상황과 상호작용하여 인상에 영향을 미치며, 인상은 착용된 의복의 외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각자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Kaiser, 1990). 또한 동일한 의복이라도 지각자 개개인의 가

치관, 성격, 흥미, 내적 욕구, 기대가 다르고 독특한 과거경험에 따라 판단기준, 지각방법, 지각수준이 달라 착용자에 대한 인상이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상황·지각자 변인이 매우 다양하고 통제가 어려워 인상형성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이 요인들의 영향에 관하여 확실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인상형성시 지각자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조정 개념이 상황별 의복선택요인 중요도에서의 개인차를 나타내주는 긍정적인 설명력을 지닌다는 연구(이은숙, 1998), 지각자의 의복태도에 따라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남미우·강혜원, 1996), 자아지각이 긍정적인 여성일수록 의복의 여러 가지 측면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연구(유수경, 1993)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우선 의복의 착용상황을 타인의 평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성을 처음 만나는 상황으로 통제한 다음, 지각자의 성별, 성격, 의복태도에 따른 인상형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상대방에게 의도된 인상을 형성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주로 첫인상 형성 상황에서의 의복스타일을 통해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Ⅱ. 이론적 배경

의복이미지란 디자인과 착용상태에 따라 의복이 전달해 주는 전체적인 느낌을 말한다. 사람들이 타인을 접했을 때의 느낌은 의복에서 표현되는 시각적 이미지에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인지각

인상형성 과정의 연구핵심은 타인에 대해 제시된 단편적 정보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으로 통합되는가이다. 인상형성이란 개인이 독립적으로 주어지는 각기 다른 정보들을 조직화시켜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 형태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Freedman, Sears, and Carlsmith, 1981),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특출한 자극들은 사회적 맥락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더 많은 판단의 일관성을 일으킨다. 두드러진 단서는 그것이 놓여 있는 배경과 주어진 단서를 비교·판단함으로써 결정되며, 그 예로 휠체어를 탄 사람, 격렬한 행동, 빨간 스웨터 등을 들 수 있다(강혜원, 1995).

2. 의복착용자의 인상과 지각자 변인

1) 의복착용자의 인상

의복착용자의 인상은 착용한 의복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각된다. 보수적인 의복 착용자는 진실하고 신뢰성이 있으며(Peak, 1986), 인습적이고 격식을 차린 인상을 주었다(Sweat and Zentner, 1985). Johnson, Nagasawa, Peters(1977)의 연구에서는 유행 의복 착용자가 유행이 지난 의복 착용자보다 더욱 사교적으로 지각되었으며 대담한 유행 의복 착용자는 매력적, 개성적인 사람으로 지각되는 한편 신뢰성이 없고 성실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Peak, 1986).

2) 지각자 변인

지각자 변인은 지각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인지적 구조 등을 포함하며(Lennon and Davis, 1989), 대인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지각자 나름대로의 흥미, 내적욕구 및 기대가 다르고 판단기준, 지각 방법,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인지각은 지각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독특하게 이루어진다(강혜원, 1995).

Peak(1986)는 지각자의 의복관심이 의복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어 의복관심이 높은 지각자일수록 대담한 의복유형에 대해 더 호의적인 인상을, 보수적, 캐주얼 유형에 대해서는 비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유수경(1993)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아지각과 의복행동의 연구에서 자아지각이 긍정적이고 연령이 낮고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특히 자아지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자아지각이 인간의 의복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고애란, 이은미, 홍희숙(1995)은 직업적합성 지각시 관찰자 변인(자기모니터링)과 성별에 따른 의복단서의 영향에 차이가 나타나 관찰자의 자기모니터링이 개인의 의복태도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의 하나라고 하였다.

이명희, 이미연(1995)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의복이미지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 전통보수형은 수수한, 고전적인, 여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하고, 적극적생활형과 예술지향형은 화려한, 현대적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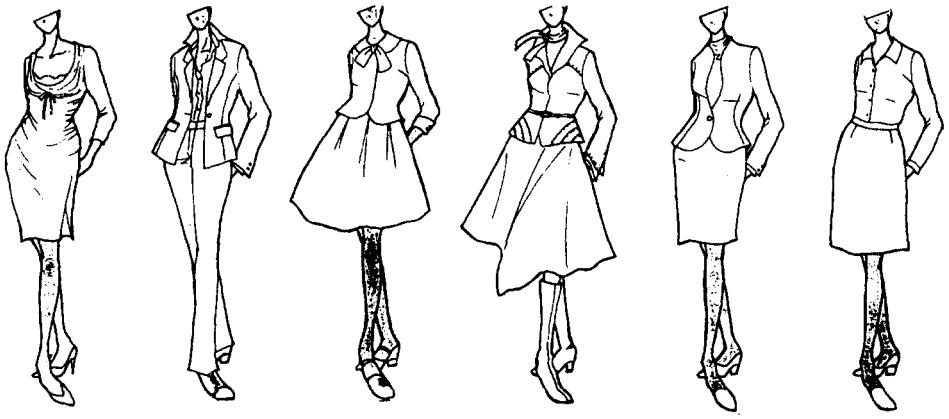
이현화, 박찬부(1998)의 연구에서는 여자 한복 착용자의 의복단서에 대한 인상형성시, 인상요인에 대한 영향이 가장 빈번했던 지각자 성격 변인은 판단형-인식형, 외향형-내향형이었고, 지각자의 성격 변인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인상요인은 선호 · 평가요인과 개성 · 주의집중 요인이었다. 그리고 지각자의 성격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인상 효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의복 단서는 색상 조화로 나타났다. 의복스타일과 관찰자 특성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를 규명한 방희선, 고애란(1999)의 연구(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요인은 자신감-세련됨, 성실함, 학업우수성, 사교성의 4개 요인, 여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요인은 성실함, 세련됨, 자신감, 사교성, 학업우수성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됨)에서는 현재 유행하고 있거나 많이 입혀지는 의복스타일이 세련된 인상을 형성하였고, 무난하고 평범한 의복스타일이 가장 성실한 인상을 형성하였으며, 학업 우수성에서는 남학생의 경우는 평범한 의복스타일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관찰자 변인 중 연령이 청소년기 의복스타일에 의한 인상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지각자의 특성에 따라 의복착용자의 인상형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인상형성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인상형성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이성간의 첫인상 형성상황으로 통제한 다음 지각자의 몇몇 특성을 중심으로 착용자의 인상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정미실(1982), 유수경(1993), 김양진(1996)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된 설문지는 5단계 리커트 척도 · 7단계 의미분별 척도 · 자유응답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시된 각 스타일에 대한 인상평가에서 남성 피험자에게는 본인이 느낀 인상을, 여성 피험자에게는 상대남성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답하게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Package를 이용한 요인분석, 군집분석, t-test, ANOVA-test, SNK-



A) 섹시 B) 매니쉬 C) 페미닌 D) 드라마틱 E) 엘레강스-클래식 F) 캐주얼

<그림 1> 자극물의 의복스타일

test 등을 실시하였다. 자극물로는 색상·재질·착용자의 인상이 통제된 6가지의 의복스타일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의복스타일의 설정은 연구기간인 2000년도에 시판되고 있는 의복디자인 경향을 토대로 의류학 전공자 30명에게 유행하는 스타일과 베이직한 스타일이 혼합된 50개의 스타일을 제시하여 6가지 의복스타일로 나누었으며 각 스타일 중 그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고 평가된 그림을 하나씩 선정하였다. 그리고 의복의 특성상 섹시한 의복(A)과 드라마틱한 의복(D)에서 유행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어졌으며 각 스타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섹시(의복 A): 여성의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디자인의 옷
- 매니쉬(의복 B): 남성 양복과 같은 분위기의 옷
- 페미닌(의복 C): 예쁘고 귀여운 느낌을 풍기는 옷
- 드라마틱(의복 D): 디자인이 대담하고 두드러져 보이는 옷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 성 별		남		여		전 체	
		N	%	N	%	N	%
연 령	20대	208	73.5	255	81.2	463	77.6
	30대	75	26.5	59	18.8	134	22.4
결 혼 여 부	미혼	220	77.7	250	79.1	470	78.5
	기혼	63	22.3	66	20.9	129	21.5
직 업	전문직	61	21.7	65	21.2	126	21.4
	회사원	27	9.6	48	15.6	75	12.8
	공무원·교사	17	6.0	38	12.4	55	9.4
	상업·사업	10	3.6	5	1.6	15	2.6
	판매·서비스직	14	5.0	28	9.1	42	7.1
	노동·생산직	2	.7	-	-	2	.3
	학생	99	35.2	56	18.2	155	26.4
	무직	27	9.6	32	10.4	59	10.3
	기타	24	8.5	35	14.3	59	11.6
본인의 월평균 수입	50만원 미만	49	25.5	20	8.4	69	16.0
	50~100만원	39	20.3	125	52.3	164	38.1
	100~150만원	57	29.7	75	31.4	132	30.6
	150~200만원	34	17.7	14	5.9	48	11.1
	200~300만원	11	5.7	3	1.3	14	3.2
	300만원 이상	2	1.0	2	.8	4	.9
학 력	중학교 졸업	1	.4	-	-	1	.2
	고등학교 졸업	15	5.3	44	13.9	59	9.9
	전문대 재학	4	1.4	39	12.3	43	7.2
	전문대 졸업	28	10.0	86	27.2	114	19.1
	대학교 재학	82	29.2	45	14.2	127	21.3
	대학교 졸업	110	39.1	81	25.6	191	32.0
	대학원 재학	22	7.8	14	4.4	36	6.0
	대학원 졸업	19	6.8	7	2.2	26	4.4
전 체		283	47.2	316	52.8	650	100.0

· 엘레강스-클래식(의복 E): 고전적 감각을 지니면서 여성답고 우아한 옷
· 캐주얼(의복 F): 약식으로 입을 수 있는 간편한 차림의 옷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20, 30대의 미혼이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아직 자녀가 없는 성인 남녀 650명이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8월 25일에서 9월 28일이다. 조사대상자의 분포는 <표 1>에 나타냈으며 여자(52.8%)가 남자(47.2%)보다 많았고, 연령은 20대(77.6%)가 30대(22.4%)보다 많았으며, 결혼 여부는 미혼(78.5%)이 기혼(21.5%)보다 많았다. 직업은 학생(26.4%, 대학원생 포함), 전문직(21.4%), 회사원(12.8%) 등의 순이었고 무직이 10.3%였다. 월평균 수입은 50~200만원 수준이 68.7%, 200만원 이상이 4.1%로 나타나 직장인들의 월평균 수입은 50~200만원 수준이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학 재학 이상이 63.7%, 전문대 재학·졸업이 26.3%,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0.1%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지각자의 성격

1) 성격 요인

성격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요인 1은 고유치 3.166으로 설명량이 21.105%이고, 요인 2는 고유치 2.383으로 설명량이 15.887%로 나타났다. 이 두 요인의 설명량은 전체 분산의 약 40%에 미치지 않지만, 본 연구는 상황과 관련해 지각자의 성격을 '적극적-소극적', '보수적-개방적'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의복스타일별 인상형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SCREE PLOT를 참고로 두 요인을 선택하였다.

요인 1은 사교적인 성격으로 「남과 친하게 지내기를 좋아하며, 친구, 동창회, 직장 등의 모임에 참여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적극성'이라고 명명하였고, 요인 2는 「여성은 역시 가정에 충실해야 하며, 여성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반대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수성'이라고 명명하였다.

2) 성격에 따른 군집

성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지각자의 성격을 몇 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2개의 성격 요인에 대한 평균점수를 기초로 군집분석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3개의 군집으로 나누었는데 도출된 군집의 특성은 <표 3>에 제시하였다. 군집 1은 소극적이면서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내어 '소극보수형', 군집 2는 소극적이면서 개방적인 성격을 나타내어 '소극개방형', 군집 3은 적극적이면서 개방적인 성격을 나타내어 '적극개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2. 지각자의 의복태도

1) 의복태도 요인

의복태도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요인 1은 고유치가 3.924로 설명량이 32.703%이고, 요인 2는 고유치 1.232로 설명량이 10.270%, 요인 3은 고유치 1.201로 설명량이 10.006%로 나타나 세 요인의 설명량은 전체 분산의 52.979%였다.

요인 1은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옷은 내게 중요하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중요성'이라고 명명하였고, 요인 2는 「남의 눈을 끄는 의복을 선택하고, 모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싶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과시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요인 3은 「나의 몸매에 자신 있고, 내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이라고 명명하였다.

2) 의복태도에 따른 군집

의복태도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지각자의 의복태도를 몇 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3개의 의복태도 요인에 대한 평균점수를 기초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3개의 군집으로 나누었는데 의복태도 요인에서 도출된 군집의 수와 특성은 <표 5>에 제시하였다. 군집 1은 의복의 중요성과 과시성 점수가 '-'값으로 낮은 반면

<표 2> 성격에 대한 요인분석

요 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설명량 (%)
적극성	-사교적인 성격으로 남과 친하게 지내기를 좋아한다	.725	3.166	21.105
	-나는 모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편이다	.662		
	-취미 클럽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다	.654		
	-친구, 동창회, 직장 등의 모임에 참여한다	.617		
	-나는 여러 방면에 걸쳐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	.590		
	-나는 주위의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편이다	.439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보낸다	-.435		
보수성	-여성에게도 사회생활은 중요하다	-.696	2.383	15.887
	-결혼을 하게 되면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626		
	-여성도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15		
	-여성도 인생의 목표를 노력해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82		
	-나는 여자의 바지 차림보다 스커트 차림을 더 좋아한다	.571		
	-여성은 역시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49		
	-명절에는 우리 고유의 풍습을 지켜야 한다	.346		
	-침대보다 온돌방이 지내기가 좋다	.341		

<표 3> 성격에 따른 군집

	군 집		
	1. 소극보수형	2. 소극개방형	3. 적극개방형
적극성	-.26993	-.72018	.93457
보수성	1.15067	-.57875	-.15019

<표 4> 의복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요 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설명량 (%)
중요성	-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옷은 내게 중요하다	.773	3.924	32.703
	- 사람들이 나의 옷차림으로 나를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	.712		
	- 옷은 첫인상에 있어서 그 사람의 진짜 특성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653		
	-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입은 옷으로 그 사람의 지위를 평가하게 된다	.521		
과시성	- 나는 남의 눈을 끌지 않는 평범한 옷을 선택하는 편이다	-.709	1.232	10.270
	- 어떤 모임이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싶다	.613		
	- 주위 사람들에게 옷을 멋지게 입는 사람으로 인정 받고 싶다	.603		
	- 나는 나의 옷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597		
	- 나는 모든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436		
	- 여성은 다소 마르더라도 날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20		
자아 존중감	- 나의 몸매(체형)에 자신이 있다	.779	1.201	10.006
	- 나는 내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715		

<표 5> 의복태도에 따른 군집

	군 집		
	의복무관심형	의복의존형	자기과시형
중요성	-1.05804	58729	.32695
과시성	- .24435	-.66990	90148
자아존중감	.08187	-.46888	.40889

자아존중감 점수는 '0'에 가까워 '의복무관심형', 군집 2는 의복의 중요성 점수가 높은 반면 과시성, 자아 존중감 점수가 낮아 '의복의존형', 군집 3은 의복의 중요성, 과시성, 자아존중감 점수가 모두 높아 '자기과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3. 각 의복스타일별 인상 요인

본 연구에서 사용된 6가지 전체 의복스타일에 대한 인상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요인 1은 고유치 7.738로 설명량이 32.240%이고, 요인 2는 고유치 4.363으로 설명량이 18.178%, 요인 3은 고유치 2.171로 설명량이 9.047%, 요인 4는 고유치 1.112로 설명량이 4.632%로 나타나 네 요인의 설명량은 전체 분산의 64.097%였다. 요인 1은 「자신감, 현대적, 개성적, 세련, 매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개성'이라고 명명하였고, 요인 2는 「격식에 맞는, 정숙한, 품위, 지적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품위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3은 「여성적인, 활동적이지 않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성성'이라고 명명하였고, 요인 4는 '깜찍성'으로 명명하였다.

4. 지각자의 특성에 따른 인상형성

1)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의복스타일별 인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의복스타일에 대한 4개 요인(개성, 품위성, 여성성, 깜찍성)의 평균을 이용하여 ANOVA-test, SNK-test를 실시하였으며, 각 인상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의복스타일은 남 · 여 · 전체에서 4개 인상 모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인상의 차이는 직업적합성 지각시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의복단서의 영향이 달라진다는 고애란, 이은미, 홍희숙(1995)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6> 의복스타일에 대한 요인분석

요 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설명량 (%)
개성	자신감 있다	.790	7.738	32.240
	현대적이다	.772		
	적극적이다	.765		
	개성적이다	.748		
	세련되었다	.731		
	멋있다	.727		
	매력적이다	.704		
	색시하다	.696		
	대담하다	.687		
	화려하다	.608		
	도회적이다	.577		
품위성	격식에 맞다	.806	4.363	18.178
	정숙하다	.785		
	품위 있다	.777		
	지적이다	.777		
	사무적이다	.720		
	인상이 좋다	.617		
	클래식하다	.583		
	마음에 든다	.560		
	성숙하다	.560		
	우아하다	.512		
여성성	여성적이다	.689	2.171	9.047
	활동적이다	-.661		
깜찍성	깜찍하다	.768	1.112	4.632

전체 지각자에 대한 인상의 요인 점수를 살펴보면, 개성 점수는 의복 A · D(섹시 · 드라마틱)가 가장 높고 의복 F(캐주얼)가 가장 낮았으며, 품위성 점수는 의복 E(엘레강스-클래식)가 가장 높고 의복 A(섹시)가 가장 낮았다. 여성성 점수는 의복 A(섹시)가 가장 높고 의복 B(매니쉬)가 가장 낮았으며, 깜찍성 점수는 의복 C(페미닌)가 가장 높고 의복 B · F(매니쉬 · 캐주얼)가 가장 낮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의복스타일별 인상을 종합해 보면, 섹시한 의복은 가장 개성적 · 여성적이지만 또한 품위없게 지각되었으며, 매니쉬한 의복은 개성적이고 품위 있지만 여성적이지 않게 지각되었다. 페미닌한 의복은 여성적이고

<표 7>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성별	인상요인[a]	의복스타일						F 값
		A	B	C	D	E	F	
남	개 성	.684 [a ab]	.151 [c]	-.458 [d]	.403 [b]	.212 [c]	-.867 [e]	156.192***
	품위성	-.756 [e]	.313 [b]	.127 [c]	-.584 [d]	.776 [a]	.154 [c]	162.405***
	여성성	.516 [a]	-.975 [e]	.558 [a]	-.230 [d]	.273 [b]	-.084 [c]	172.802***
	깜찍성	-.055 [b]	-.706 [b]	.812 [a]	.129 [b]	.125 [b]	-.739 [b]	39.326***
여	개 성	.544 [b]	.325 [c]	-.829 [e]	.832 [a]	.155 [d]	-1.122 [f]	302.175***
	품위성	-1.224 [e]	.631 [b]	.124 [c]	-.710 [d]	1.035 [a]	.110 [c]	370.456***
	여성성	.871 [a]	-1.359 [e]	.640 [b]	-.370 [d]	.444 [c]	-.294 [d]	336.675***
	깜찍성	-.375 [c]	-.519 [cd]	.922 [a]	.154 [b]	-.421 [cd]	-.560 [d]	131.584***
전 체	개 성	.611 [a]	.241 [b]	-.652 [c]	.629 [a]	.182 [b]	-1.002 [d]	428.617***
	품위성	-1.002 [e]	.478 [b]	.125 [c]	-.650 [d]	.912 [a]	.131 [c]	500.410***
	여성성	.703 [a]	-1.175 [f]	.600 [b]	-.304 [c]	.363 [c]	-.194 [d]	488.640***
	깜찍성	-.223 [c]	-.304 [d]	.870 [a]	.142 [b]	-.162 [c]	-.329 [d]	147.845***

[a] 요인점수, [b] Student-Newman-Keuls 검정 결과. *p<.1, **p<.05, ***p<.01.

가장 깜찍하지만 개성적이지 않게 지각되었으며, 드라마틱한 의복은 가장 개성적이지만 여성적이지 않고 품위없게 지각되었다. 엘레강스-클래식한 의복은 가장 품위있게 지각되었으며, 캐주얼한 의복은 가장 개성적이지 않게 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복스타일 중 섹시·드라마틱한 스타일이 유행이 가장 많이 반영된 의복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유행을 따르는 옷차림은 사교적이며 인기있고 성적매력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옷차림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하며(Johnson, Nagasawa and Peters, 1977), 현재 유행하고 있거나 많이 입혀지는 의복스타일에 대해 세련되게 평가한다는 방희선, 고애란(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품위성 요인에 「격식에 맞는, 품위있는, 사무적인, 지적인」 등의 인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보수적인 의복은 인습적이고 격식을 차린 인상을 준다는 Sweat와 Zentner(198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각 의복스타일에서 개성 요인을 제외하고는 전체 지각자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남성은 의복 A(섹시)의 개성 점수가 가장 높아 성적매력이 있는 의복을 가장 개성적으로 지각한 반면, 여성은 의복 D(드라마틱)의 개성 점수가 가장 높아 디자인이 대담하고 두드러진 의복에 대해 남성이 가장 개성적으로 지각할 것이라 평가하여 남녀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이성간의 첫인상 형성 상황에서 여성이 상대남성에게 개성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섹시한 의복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남·여·전체 의복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각 의복스타일 내에서의 남녀 인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의복 A(섹시)는 모든 인상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개성·품위성·깜찍성 점수는 남성이 더 높았고 여성성 점수는 여성이 더 높았지만 품위성·깜찍성 점수는 남녀 모두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의복 B(매니쉬)는 모든 인상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개성·품위성·깜찍성 점수는 여성이 더 높았고 여성성 점수는 남성이 더 높았지만 여성성·깜찍성 점수는 남녀 모두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의복 C(페미닌)는 개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개성 점수가 남성이 더 높았지만 이들 점수는 남녀 모두 낮은 경향을 나타

<표 8> 각 의복스타일 내에서의 남녀 인상 차이

			의 복 유 형					
			A	B	C	D	E	F
인상 요인	개성	남	.684	.151	−.458	.403	.212	−.867
		여	.544	.325	−.829	.832	.155	−1.122
		t 값	1.968*	−3.011***	5.754***	−6.395***	.947	3.847***
	품위성	남	−.756	.313	.127	−.584	.776	.154
		여	−1.224	.631	.124	−.710	1.035	.110
		t 값	6.991***	−5.349***	.061	1.832	−4.288***	.727
	여성성	남	.516	−.975	.558	−.230	.273	−.084
		여	.871	−1.359	.640	−.370	.444	−.294
		t 값	4.898***	5.573***	−1.303	2.190**	−3.198***	3.895***
	깜찍성	남	−.055	−.706	.812	.129	.125	−.739
		여	−.375	−.519	.922	.154	−.421	−.560
		t 값	4.438***	5.758**	−1.368	−.371	7.506***	6.761***

*p<.1, **p<.05, ***p<.01.

냈다. 의복 D(드라마틱)는 개성 · 여성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두 요인의 점수가 남성이 더 높았지만 여성성 점수는 남녀 모두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의복 E(엘레강스-클래식)는 개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품위성 · 여성성 점수는 여성이 더 높았고 깜찍성 점수는 남성이 더 높았다. 특히 남성은 의복 E를 깜찍하게 지각한 반면, 여성은 남성이 깜찍하지 않게 지각할 것이라 평가하여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의복 F(캐주얼)는 품위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개성 · 여성성 점수는 남성이 더 높았고 깜찍성 점수는 여성이 더 높았지만 이 모든 요인의 점수가 남녀 모두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섹시한 의복에 대해서는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호의적이고 매니쉬한 의복에서는 여성이 더 호의적이며 드라마틱한 의복에서는 여성이 개성 요인에서 더 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해 첫인상 형성 상황에서 여성이 전달되리라고 생각하는 인상과 남성이 지각하는 인상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상의 차이는 직업적합성 지각시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의복단서의 영향이 달라진다는 고애란, 이은미, 홍희숙(1995)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상대방에게 의도된 인상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지각자의 성격에 따른 인상형성

지각자의 성격에 따라 의복스타일별 인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의복스타일에 대한 4개 요인(개성, 품위성, 여성성, 깜찍성)의 평균을 이용하여 ANOVA-test를 실시하였다. 각 요인별로 유의차가 나타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는데, 남성은 의복 A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스타일에서, 여성은 의복 A · C 스타일에서 성격에 따른 인상 차이를 보였다.

먼저 남성의 경우, 의복 B(매니쉬)는 개성 · 품위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개성 점수는 적극개방형이 가장 높았고 품위성 점수는 적극개방형이 소극개방형보다 높았다. 의복 C(페미닌)는 품위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적극개방형이 가장 높았다. 의복 D(드라마틱)는 개성 · 품위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개성 점수는 적극개방형이 가장 높았고 품위성 점수는 모든 성격에서 낮았지만 적극개방형이 소극개방형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의복 E(엘레강스-클래식)는 개성 · 품위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들 점수 모

<표 9> 지각자의 성격에 따른 인상형성

성별	의복스타일	인상요인	성 격 특 성			F 값
			소극보수형	소극개방형	적극개방형	
남	B	개성	.104 [b]	.065 [b]	.298 [a]	3.045**
		품위성	.282 [ab]	.194 [b]	.443 [a]	2.690*
	C	품위성	.049 [b]	-.038 [b]	.344 [a]	8.226***
	D	개성	.344 [b]	.071 [c]	.685 [a]	11.740***
		품위성	-.578 [ab]	-.786 [b]	-.408 [a]	4.396**
	E	개성	.304 [a]	.013 [b]	.252 [a]	3.965**
		품위성	.838 [a]	.514 [b]	.893 [a]	6.885***
	F	개성	-.668 [a]	-.929 [b]	-1.004 [b]	5.962***
		여성성	-.058 [a]	-.249 [b]	.002 [a]	3.790**
		깜찍성	.003 [a]	.099 [a]	-.280 [b]	5.028***
여	A	품위성	-.912 [a]	-1.246 [b]	-1.282 [b]	2.814*
		깜찍성	-.041 [a]	-.409 [b]	-.443 [b]	2.918*
	C	개성	-.633 [a]	-.753 [ab]	-.993 [b]	4.067**
		깜찍성	.555 [b]	1.004 [a]	.931 [a]	2.946*

[a]요인점수, [b] Student-Newman-Keuls 검정 결과, *p<.1, **p<.05, ***p<.01.

두 소극보수형 · 적극개방형이 소극개방형보다 높았다. 의복 F(캐주얼)는 품위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들 점수가 모든 성격에서 낮았지만 대체로 소극보수형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의 남성은 캐주얼한 의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복에 대해 호의적이었으나 캐주얼한 의복에 대해서는 비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하였고,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의 남성은 엘레강스-클래식한, 캐주얼한 의복에 대해 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하였다. 이는 전통보수형은 수수한, 고전적, 여성적 이미지를 선호하고, 적극적 생활형은 화려한 이미지, 현대적 이미지를 선호한 이명희, 이미연(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여성의 경우, 의복 A(섹시)는 품위성 · 깜찍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들 점수가 모든 성격에서 낮았지만 소극보수형이 다른 성격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여성 자신은 소극적인 성격이지만 상대남성이 섹시한 의복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다른 성격의 여성에 비해 덜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견해이므로 후속연구에서 자세히 규명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복 C(페미닌)는 개성 · 깜찍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개성 점수는 모든 성격에서 낮았지만 소극보수형이 적극개방형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냈고 깜찍성 점수는 소극개방형 · 적극개방형이 소극보수형보다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적극개방형 · 소극개방형의 여성이 페미닌한 의복에 대해 상대남성이 개성적이진 않지만 깜찍한 인상을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대부분의 여성이 섹시한 의복에 대해서는 상대남성이 비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해 첫인상 형성 상황에서 성격에 따라 여성이 전달되리라고 생각하는 인상과 남성이 지각하는 인상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복스타일별로 성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요인은 개성과 품위성으로 나타났는데 품위성 요인에 「마

음에 드는, 인상이 좋은, 지적인」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각자의 성격변인에 의한 영향이 가장 많은 인상요인은 선호 · 평가 요인과 개성 · 주의집중 요인이라고 한 이현화, 박찬부(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성격에 따라 착용자의 인상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지각대상을 지각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독특하게 지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강혜원, 1995).

3) 지각자의 의복태도에 따른 인상형성

지각자의 의복태도에 따라 의복스타일별 인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의복스타일에 대한 4개 요인(개성, 품위성, 여성성, 깜찍성)의 평균을 이용하여 ANOVA-test를 실시하였다. 각 요인별로 유의차가 나타난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는데 남성은 의복 A · D · E · F 스타일에서, 여성은 의복 A · C · D 스타일에서 의복태도에 따른 인상 차이를 보였다.

먼저 남성의 경우, 의복 A(섹시)는 개성 · 깜찍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개성 점수는 의복의존형 · 자기과시형이 의복무관심형보다 높았고 깜찍성 점수는 자기과시형이 가장 높았다. 의복 D(드라마틱)는 품위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개성 점수는 자기과시형 · 의복의존형이 의복무관심형보다 높았고 여성성 점수는 모든 의복태도에서 낮았지만 의복무관심형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깜찍성 점수는 자기과시형이 가장 높았다. 의복 E(엘레강스-클래식)는 여성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개성 · 품위성 점수는 의복의존형 · 자기과시형이 의복무관심형보다 높았고 깜찍성은 자기과시형이 의복무관심형보다 높았다. 의복 F(캐주얼)는 깜찍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의복무관심형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기과시적인 남성은 캐주얼한 의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의복(섹시, 드라마틱, 엘레강스-클래식)에 대해 호의적이었고 의복에 무관심한 남성은 캐주얼한 의복에 대해서만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두 성격간에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의복관심을 지닌 지각자들이 그렇지 않은 지각자보다 대담한 의복스타일에 대해 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하고 캐주얼 스타일에 대해서는 비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한다고 한 Peak(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의복 A(섹시)는 품위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요인 점수가 모든 의복태도에

<표 10> 지각자의 의복태도에 따른 인상형성

성 별	의복스타일	인상요인	의복태도특성			F 값
			의복무관심형	의복의존형	자기과시형	
남	A	개성	.530 [b]	.832 [a]	.827 [a]	4.083**
		깜찍성	−.135 [b]	−.126 [b]	.138 [a]	2.481*
	D	개성	.271 [b]	.454 [a]	.569 [a]	2.857*
		여성성	−.104 [a]	−.323 [b]	−.300 [b]	2.371*
		깜찍성	.025 [b]	.031 [b]	.362 [a]	4.111**
	E	개성	.095 [b]	.329 [a]	.309 [a]	.030**
		품위성	.666 [b]	.889 [a]	.834 [a]	.064*
		깜찍성	−.013 [b]	.160 [ab]	.316 [a]	.049**
	F	깜찍성	.053 [a]	−.201 [b]	−.201 [b]	3.107*
여	A	품위성	−1.089 [a]	−1.350 [b]	−1.153 [ab]	2.639*
	C	깜찍성	.644 [b]	.946 [a]	1.027 [a]	3.249**
	D	품위성	−.345 [a]	−.917 [c]	−.671 [b]	9.483***

[a] 요인점수, [b] Student-Newman-Keuls 검정 결과. *p<.1, **p<.05, ***p<.01.

서 낮았지만 소극보수형이 의복의존형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의복 C(페미닌)는 깜찍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의복의존형 · 자기과시형의 요인 점수가 의복무관심형보다 높았다. 의복 D(드라마틱)는 품위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요인 점수가 모든 의복태도에서 낮았지만 대체로 의복무관심형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기과시형 · 의복의존형 여성은 페미닌한 의복에 대해 상대남성이 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또한 대부분의 여성이 섹시하고 드라마틱한 의복에 대해서는 상대남성이 품위성 요인에서 비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첫인상 형성 상황에서 의복태도에 따라 여성이 전달되리라고 생각하는 인상과 남성이 지각하는 인상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첫인상 형성 상황에서 지각자의 특성에 따른 의복스타일별 인상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6가지 의복스타일은 섹시(A), 매니쉬(B), 페미닌(C), 드라마틱(D), 엘레강스-클래식(E), 캐주얼(F)이었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의복스타일별 인상형성에 차이가 있었다. 섹시한 의복에 대해서는 남성이 받는 인상이 여성이 추측하는 인상보다 더 호의적이었으며, 매니쉬한 의복에서는 여성이 추측하는 인상이 남성이 받는 인상보다 더 호의적이었다.

둘째, 성격에 따른 의복스타일별 인상형성에 차이가 있었다. 적극개방형 남성은 캐주얼한 의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복인 매니쉬, 페미닌, 드라마틱, 엘레강스-클래식한 의복에서 호의적이었으며, 적극개방형 여성은 남성이 섹시한 의복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셋째, 의복태도에 따른 의복스타일별 인상형성에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는 의복의존형 · 자기과시형이 섹시 · 드라마틱 · 엘레강스-클래식한 의복에, 의복무관심형이 캐주얼한 의복에 호의적이었으며, 여성의 경우는 의복의존형 · 자기과시형 여성이 페미닌한 의복에 대해 남성들이 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할 것이라 평가한 반면에 대부분의 여성이 섹시 · 드라마틱한 의복에 대해서는 남성이 비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인상 형성 상황에서 상대방의 성격이나 의복태도에 대한 정보가 미리 주어진다면 이를 고려한 의복행동이 자신의 인상을 더 호의적으로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상요인을 세분화해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상요인에 대한 전체적인 것 보다는 세분화된 인상들에 관한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로 모든 인상형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이 대구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확대 해석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의 의복뿐만 아니라 남성의 의복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색상 · 재질 · 착용자의 인상이 통제된 자극물을 사용하였는데 사회적 맥락에 따라 신체적 외모에 영향을 주는 색상이나 재질 등을 고려한 다양한 의복스타일에 관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고애란, 이은미, 홍희숙 (1995) 남성정장의 의복단서와 관찰자의 자기모니터링이 직업 적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1), 211-222.

김양진 (1996). 유행의복 이미지가 개인의 자아개념과 의복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미우, 강혜원 (1996). 관찰자의 의복태도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2), 163-171.

방희선, 고애란 (1999). 청소년의 의복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11), 1-10.

유수경 (1993). 성인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교육논총*, 13, 170-190.

이명희, 이미연 (1995). 의복의 선호도와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30, 40대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성신*

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 9, 125-144.

이은숙 (1998). 개인의 기질적 특성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연구, *울산대학교 자연과학논문집*, 8(1), 97-112.

이현화, 박찬부 (1998). 지각자의 성격변인에 따른 의복단서의 인상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 (3), 341-351.

정미실 (1982). 남자중 · 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Freedman, J. L., Sears, D. P. and Carlsmith, J. M. (1981). *Social psychology*. 2nd ed. New York: Prentice-Hall Inc.

Johnson, B. H., Nagasawa, R. H. and Peters, K. (1977). Clothing style differences: their effect on the impression of sociability,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6, 58-63.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i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Lennon, S. J., and Davis. L. L. (1989). Clothing and human behavier from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part I: Theoretical perspective,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7(4), 41-48.

Paek, S. L. (1986). Effects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traits, *Clothing and Textiles Reserch Journal*. 5(1), 10-16.

Sweat, S. J. and Zentner, M. A. (1985). Female appearance presentation: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attribution and situational choi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2), 175-186.